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향년 87 세, 63 년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자매  
**마리아 클라우디아 피에몬테 수녀님이**  
2021 년 1 월 20 일 15 시 15 분  
네그라르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섭리의 계획안에서 당신자신을 계시하시고자 우리의 목소리 없이도 가능하시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나이다. 구원하시는 말씀의 선포이자 증언으로 오늘 전례의 두 번째 기도 말씀은 선한목자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뿌리내리고 사목적 돌봄의 직무에 헌신하시고 구원하시는 말씀의 충실한 증이이셨던 클라우디아 수녀님이 행하신 사명과 생명을 포함합니다.

마리아는 세 자매 중 둘째딸로 1933 년 4 월 11 일 체시날리에서 태어났고 1933 년 4 월 30 일 산 실베스트로 교향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톨릭 활동에 열심이었고 교구대표이기도 했습니다. 본당신부님은 본당활동을 매우 잘하는 활동적인 젊은이로 묘사합니다. 아벨리노의 첫 번째 빠스또렐레 성소는 알베리오네 신부님과 바오로가족 특히 우리의 사목사명을 크게 존경하는 페르디난도 렌줄리 신부님의 동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물이 우리의 카리스마를 살기에 적합하다고 믿었기에 클라우디아 수녀님에게 빠스또렐레에 입회를 강력히 추천한 것은 바로 페르디난도 신부님입니다.

마리아는 1954 년 3 월 21 일 알바노 라찌알레-모원에서 입회하였고 1956 년 9 월 2 일 수련기에 들어갔습니다. 1957 년 9 월 3 일 첫서원을, 1962 년 9 월 3 일 중신서원을 알바노 라찌알레에

서 하였습니다. 첫서원 후 1957 년 폴펫에서 사목직무를 수행하셨고 공동체의 장상이었습니다. 1963 년 가정사목을 주로 수행했던 비첸자-꾸워레 임마꼴라또로 이동하였습니다. 1967 년 브라질로 선교를 떠났고 자바꾸아라-산 빠울로에서 "디비나 빠스또라 학교"에서 첫 번째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1968 년 자르딤-산 빠울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장상직을 하였고 1971 년 유기서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76 년 1 년간 아시스로 이동하였습니다.

초기 양성기부터 친절하고 관대하고 이타적이고 온순하고 기쁘고 실천적인 총명함을 지녔고 근면하고 사목사도직을 사랑한다고 묘사되었습니다. 수도회에 매우 헌신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녀님들은 클라우디아 수녀님을 확고한 믿음과 희생의 능력으로 수도회에 커다란 사랑을 지닌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선을 행하기로 결심한 수녀님으로 독서를 좋아하고 솔직하고 신중하며 모든 이와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저 너머"의 것을 볼 줄 알았습니다. 수도회에 대한 사랑과 열렬한 사도적 열정 덕분에 수녀님은 힘들고 때로는 더 이상 젊은 나이가 아니어도 수녀님에게 맡겨진 다양한 선교 임무와 다양한 봉사에 관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수녀님의 "예"와 봉헌은 모든 이를 위한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자매들은 클라우디아 수녀님이 언제나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하셨고 어디를 가든 피로와 때로는 언어의 피로함조차 드러내지 않았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의 봉헌은 언제 국경 없이 모든 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녀님에게 사목활동을 그만두고 노년과 질병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수녀님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초기의 어려움 이후에 수녀님은 커다란 평온함과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독서자였고 언제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브라질의 수녀님들은 클라우디아 수녀님을 감사하게 기억하고 수녀님의 선교사로서의 현존이 예언, 사목적 역동성, 거룩함을 위한 선물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위처럼 강하고 용감하고 진취적이고 넓은 안목을 가진 신앙의 여인인 수녀님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으로 가장 도전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사목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수녀님은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 복음화를 위한 대안과 새로운 제안을 찾는 데 창조적인 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자매들이 더 준비되어 있어야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977 년, 브라질에서 10 년간의 강렬한 선교 끝에 그는 1 년간의 면학기를 위해 이탈리아,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1980 년에 수녀님은 알바노의 양성/면학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리차에서 거행한 제 3 차 총회에서 1981 년 7 월 12 일 총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총회 수행일원이 아니었던 클라우디아 수녀님은 수녀 그룹과 함께 바오로 가족의 기원 장소로 수도회를 이끄는 봉사를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바오로 가족 탄생지에서 수녀님들의 그룹을 동반하기 위해 알바에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 수녀님은 마드레 첼리나 오르시니의 뒤를 이어 로마-에우르 모스타차노 총원에 거주하였습니다. 수녀님은 수녀들에 대한 연구가 사명을 수행하는 데 특히 주의하면서 수도회 발전에 대한 큰 관대함, 열정 및 관심으로 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987 년 봉사가 끝날 무렵 토르 산 로렌조 (RM) 공동체에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1988 년 클라우디아 수녀님은 약 10 년 동안 산타(페루)로 선교를 갔으며, 그곳에서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 버림받은 아이들과 공부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헌신했다는 표시를 남겼습니다. 수녀님은 구체적인 연대를 불러일으키고 돌보는 선한 목자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회 폭력 시대에 산타 사람들에게 어머니, 자매 및 평화의 친구였습니다.

한 평신도가 작별을 위해 만든 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산타 계곡"의 비옥한 땅에 사랑과 평화의 씨를 뿌렸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산드로 신부님과 당신과 같은 놀라운 자녀가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

1998 년에 수녀님은 서울-길음동(한국)의 위임구장 봉사를 맡게 되었고, 이 요청은 새로운 "선교사 모험"을 큰 관대함과 용기로 시작하여 클라우디아 수녀님에게서 온전히 내어맡김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자매들은 클라우디아 수녀가 신학교에서 영적 돌봄과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모든 영역에 가장 깊은 기초를 놓은 위임구의 혁신가였다고 선언합니다. 자매들은 권위의 봉사  
에 위임구가 참여하고 다른 언어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감사하게 기억합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그녀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에서 사목 사명을 지속합니다. 네그라르(2002  
년), 사목일꾼 양성에 헌신하며 공동체 장상직을 맡은 페스키에라 보로메오의 베틀라(2003 년),  
2009 년부터 살리체토 빠나로, 2011 년에 그롤리아스코, 2012 년부터 다시 살리체토 빠나로.

2017 년에 그녀는 건강의 악화로 인해 네그라르 공동체로 이동했고 자매들은 그녀를 항상 감  
사를 드리며, 공동체, 직원들, 의사들에 대한 신중하고 감사를 드린 존재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시기에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 온전히 응답 할 수 없었  
던 것에 대해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녀님은 죽기 전날  
까지 우리와 직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수녀님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열정적으로 읽던 책과 잡지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모든 자매들과 의료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클라우디아 수녀님을 성부의 자비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수녀님이 어디에 있던 평생  
동안 인류와 수도회의 필요에 열려있는 열정적인 빠스또렐라에 대한 증언을 하게해 주신 선한  
목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알바니아-모잠비크 하나의 관구로 단일화를 향한 두 이탈리아 관구의 여정을  
클라우디아 수녀님의 전구에 맡겨 풍성한 은총, 특히 거룩한 성소자들과 새로운 선교 열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합니다.

2021 년 1 월 20 일,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